

대중화에 성공한 학술 필독서

《해리포터의 과학》 로저 하이필드 지음 | 이한음 옮김 | 해냄출판사 | 398쪽 | 값 12,000원

해리포터 마법의 비밀을 풀어주는 과학서. 마법의 실현 가능성을 물리학, 생물학, 유전학 등을 이용하여 과학적으로 검증하면서 미신과 같은 마법적인 사고 방식의 기원을 흥미롭게 탐구한다.



《사이언스 오딧세이》 찰스 플라워즈 지음 | 이충호 옮김 | 가람기획 | 366쪽 | 값 20,000원

인류의 역사를 바꾼 과학분야의 사건들을 주인공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책. 물리학과 천문학, 기술, 기원, 의학, 인간행동 등 전신電信에서 사이버 스페이스까지 현대 문명을 가능케 한 과학적 진보들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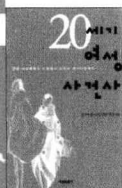
《무한한 가능성, 환경산업》 박종식·김태용 공저 | 삼성경제연구소 | 294쪽 | 값 15,000원

환경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우리 현실에 맞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환경 전문가의 제안. 선진국의 환경산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을 제시한다.



《20세기 여성사건사》 김박세상 | 여성신문사 | 366쪽 | 값 12,000원

20세기 한국 여성의 역사를 과격적인 사건들을 따라가며 보여주는 책. 나혜석 이혼사건, 자유부인 논쟁,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윤금이 살해사건, 사이버 페미니즘까지 지난 세기 한국 여성 사건을 짚어나갔다.



《은밀한 몸》 한스 페터 뒤르 지음 | 박계수 옮김 | 한길사 | 668쪽 | 값 12,000원

많은 사람들이 입 밖으로 꺼내기를 꺼려하는 여성의 외음부에 대한 수치심에 주목한 책. 여성들이 갖고 있는 외음부에 대한 수치심을 탐구하면서 그것이 문명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임을 밝혀낸다.





《사랑, 그 딜레마의 역사》 볼프강 라트지움 | 장혜경 옮김 | 이팔리오 | 328쪽 | 값 10,000원

사랑을 바라보는 관점, 사랑의 형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를 살펴본 책. 사랑의 역사가 서양의 인간 사회가 거처온 기나긴 여정을 더듬어 보는 작업임을 보여주는 책으로 예술 장르를 포괄해 보다 쉽게 사랑의 역사를 서술했다.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 오주석 지음 | 솔출판사 | 250쪽 | 값 15,000원

말체를 잘 풀어쓴 한국 문화 해설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전통 문화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했으며 예술을 이론이 아닌 마음으로 이해해야 하는 방법들을 보여준다.



《홍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이영미 지음 | 황금가지 | 366쪽 | 값 15,000원

우리 대중가요사 100년의 역사를 소개하는 독특한 역사서. 대중가요야말로 대중의 심리와 당대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저자의 시각이 잘 우러나 있고 대중가사를 통해 문학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비바 오페라》 박홍규 지음 | 가산출판사 | 308쪽 | 값 15,000원

계몽, 혁명, 민족, 자유, 국가, 민중, 여성, 현실, 민주주의라는 코드를 가지고 오페라를 분석한 책. 오페라를 귀족계급에 대항하는 서민계급의 투쟁을 그린 작품으로 평가하면서 오페라 속 시대정신을 찾아보고 있다.



《해석에 반대한다》 수잔 손택 지음 | 이민아 옮김 | 이후 | 470쪽 | 값 23,000원

수잔 손택의 예술론을 가장 체계적으로 드러낸 논문 〈해석에 반대한다〉와 〈'캠프'에 관한 단상〉을 엮은 논문집. 서구 미학의 전통을 이루던 내용과 형식의 구별,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구별을 도발적인 문제제기로 비판한다.



《미학 오디세이》 진중권 지음 | 새길 | 296쪽 | 값 12,000원

'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져놓고 아름다움의 세계를 쉽고 자유롭게 풀어나가는 미학책. 대중들에게 근대 미학을 친숙한 학문으로 인식시킨 대표적 미학 입문서인 이 책은 연극, 영화, 소설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미학의 본질을 찾는다.



《우리말의 수수께끼》 박영준·시정곤·정주리 지음 | 김영사 | 304쪽 | 값 10,900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강단 국어학자들이 우리말을 가볍고 편하게 알려주는 책. 독자들이 문법, 맞춤법, 그리고 옛글자들과 함께 뛰고 뒹굴며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국어학을 정리한다.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고미숙 지음 | 그린비 | 414쪽 | 값 13,900원

지금까지 중상주의 실학파의 거두로서 '이용후생'을 주창한 인물로만 알려졌던 연암 박지원을 새롭게 전하는 책. 유머의 천재, 패러독스의 달인, 중세의 포스트모던 철학자, 들뢰즈가 말하는 유목민(노마드)으로서의 연암을 만나볼 수 있다.

《문학이론》 조너선 컬러 지음 | 이은경·임옥희 옮김 | 동문선 | 226쪽 | 값 7,000원

문학이론이란 무엇이고 왜 이 질문이 중요한지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는 문학이론서. 이론을 학과 중심이 아닌 주제별로 간단 명료하게 엮어 집대성시키면서 중요한 문제의 핵심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근대 계몽기의 학술·문예 사상》 민족문화연구소 편역 | 소명출판 | 444쪽 | 값 20,000원

우리 역사에서 애국 계몽기로 불리는 1894~1910년까지의 학문의 교체과정을 비롯해 실학 재평가작업, 국학연구 붐 등 계몽기의 학문을 조망하는 책. 이 시기의 대표서적 77종의 서문과 발문을 옮겨 실으면서 근대성의 의미, 학문의 역할과 방향을 찾아본다.



《악마의 문화사》 제프리 버튼 러셀 지음 | 최은석 옮김 | 황금가지 | 406쪽 | 값 15,000원

악마 관념의 탄생과 성장, 변모를 3천년 서양 역사를 따라가며 추적한 책. 신학과 문학의 영역에서 악마의 개념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으며 단테, 밀턴, 도스토예프스키 등의 작가들 작품에서 악마 이미지를 발견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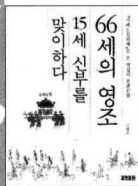
《악마와 검푸른 바다 사이에서》 미커스 레디커 지음 | 박연 옮김 | 까치글방 | 372쪽 | 값 12,000원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해양선원을 다룬 역사서. 악마와 검푸른 바다 사이에 낀 해양노동자들을 통해서 18세기 해양사, 사회사, 노동계급, 국제무역 등의 거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정보성있게 알려준다.



《66세의 영조 15세 신부를 맞이하다》 신병주 지음 | 효형출판 | 292쪽 | 값 18,000원

18세기 왕실 혼례문화 보고서. 왕비는 어떻게 뽑았고, 혼수품은 무엇이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면서 충분한 사료, 관련그림, 사진 등으로 감칠맛나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왕실혼례의 색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여성적인 동양이 남성적인 서양을 만났을 때》 이옥순 지음 | 푸른역사 | 200쪽 | 값 8,000원

이 책은 역국이 기대한 인도인의 이미지와 그에 대응하는 인도인에 의한 인도의 얼굴을 그린 책. 19세기 식민주의가 현재의 인도와 인도인에 미친 영향을 서술하였고 정신분석학 이론과 문학작품 분석을 통해 영국정부의 문화적, 심리적 지배전략을 파헤쳐 나갔다.



《이미지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김우창·성원경·김성도 지음 | 생각의나무 | 478쪽 | 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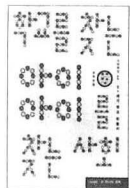
영상문화학회의 학술발표 논문집. '이미지학'에 관련한 수준높은 논문들을 담은 이 책은 다가올 영상문화시대의 가치를 올바르게 가늠하고 담론을 생산하는 학회 글 속에는 문자중심 시대의 독재성을 비판하는 글들이 실려 있다.



《우리 책의 장정과 장정가들》 박대현 엮음 | 열화당 | 184쪽 | 값 20,000원

우리나라에 처음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전통 장정이 서서히 지금과 같은 양장의 모습으로 변모해 가는 과도기의 장정과 장정가들의 역사를 담은 책. 근대출판 70년 동안 단행본들의 이모저모를 54명의 장정가가 만든 131권의 책을 통해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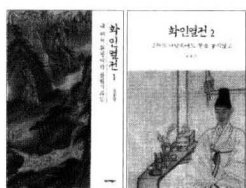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사회》 조한혜정 지음 | 또하나의문화 | 398쪽 | 값 13,000원

청소년 실태에 관한 연구결과를 모은 책. 심대를 이해하고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먼저 세대 간 문화적 차이를 만들어낸 역사적 원인들을 규명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라는 인류학적 방법을 취한 저자의 방법론 제안이 실려있다.



《김혁의 프랑스 와인 기행》 김혁 지음 | 세종서적 | 272쪽 | 값 18,000원

와인 전문 칼럼니스트와 함께 떠나는 낭만적인 와인 기행서. 저자가 방문했던 프랑스 와인성 100곳 중 50여 곳을 골라 와인성의 성주들에게 들은 와인에 얽힌 이야기들과 직접 시음한 와인의 맛을 생생하게 전해 주고 있다.



《화인열전 1,2》 유홍준 지음 | 역사비평사 | 각권 400쪽 내외 | 각권 값 22,000원 |

한국미술사의 대표적 화가 여덟 명의 예술적 성취를 인생역정을 통해 살펴본 책. 연담 김명국, 공재 윤두서, 단원 김홍도, 추사 김정희 등 한국회화사에서 중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저자 특유의 맛깔나는 이야기 전개로 풀어나간다.



《풍경을 담은 그릇 정원》 박정욱 지음 | 서해문집 | 352쪽 | 값 22,000원

주위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그 아름다움을 발하는 한국의 정원을 말하는 책. 주위의 풍경을 담고 있는 우리 정원을 감상하고 풍류를 느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진과 함께 시경을 해석, 소개한다.



《김석범 『화산도』 읽기》 나카무라 후쿠지 지음 | 삼인 | 278쪽 | 값 16,000원

재일동포 소설가 김석범 씨의 《화산도》를 정치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 연구서. 김석범 문학이 차지하는 위치부터 화산도에 대한 분석까지 한 저자는 사회과학자적인 측면에서 작품과 작가를 비평한다.



《한국의 활쏘기》 정진명 지음 | 학민사 | 544쪽 | 값 20,000원

5천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활의 역사와 활 자체의 원리, 제작과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책. 우리 겨레의 슬기가 가장 잘 녹아 있고, 기능 또한 세계 최고인 우리 활에 대한 긍금증을 쉬운 말로 풀어준다.



《문학으로 보는 성》 김중희·최혜실 엮음 | 김영사 | 352쪽 | 값 9,900원

우리 문학 속에서 성性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책. 문학과 성의 관계를 '성의 본질' '성과 평등' '성과 가족' '성과 근대성' '성과 도덕' '미래의 성' 으로 나누고 이와 관련 되는 성 이론을 제시했다.